



##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만전을 기하자

**해** 양수산부가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를 한국어항협회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어항의 유지 관리 기법이 도입되게 되었다.

한국어항협회의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업무 수행은 공익적 국가 기간 시설인 어항을 전문가들이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시설물의 적정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수 보강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어항개발이 시공위주에서 관리적 측면도 고려하게 되었다는 데서 우리나라 어항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는 것에서 의미있는 일임에 틀림없다.

이 업무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3년, 태풍으로 인한 어항시설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어항시설물 점검 위탁 운영에 관한 예산반영을 추진하였고 지난해에는 문제예산 국회심의 때 어항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점검 필요성을 제기 하기도 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기울인 결과다.

한국어항협회 입장에서도 수산기반 구축 전문단체로서 그 전문성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실 협회가 어항의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항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설립 취지에 맞는 업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협회에서도 의욕적으로 업무를 준비해 안전 점검 경력자 및 수중조사를 위한 잠수기능사 자격소지자 등 어항점검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직제도 엔지니어링사업부를 새로 신설했다. 또 이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어항시설물 안전점검 업무는 국가 기간 시설인 105개 국가 어항의 기본 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안전진단과 적정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중요한 공익적 업무다.

전문인력들이 시설물의 안전 여부를 신속히 판단, 적기에

보수·보강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 미연에 자연 재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업무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각 지방해양수산청 기술직 공무원들이 대상 시설물이 사용요건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반기별 1회 육안으로 검사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조사, 설계서 작성, 공사 감독, 어항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및 피해 조사·복구, 비 관리 청 어항시설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인·허가, 기타 공사 관련 일반 행정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어항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어려웠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육안검사 위주의 점검이 계속 될 경우 자연 재해 피해율이 높아 지게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함께 어항시설물은 대부분 수중 구조물이기 때문에 단순 육안 검사 이외에 다양한 방법의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나 예산 과 전문성 문제 등으로 그동안 실시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다.

또 어항시설물의 축조, 보수·보강 주체와 안전점검 주체가 분리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객관성이나 실효성 확보에도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어항 시설물 안전 점검을 공익적 전문단체인 한국어항협회가 수행하게 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이 업무는 제정 어촌·어항법안에 한국어항협회가 어항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 통과 이후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업무 수행이 예상된다.

새롭게 시작한 업무에 대하여 해당 담당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 기간시설이며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어항의 파수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촌어항소식)

